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속계와 법계, 아누스의 두 얼굴

원효 <화엄경소서>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1) "대저 무장무애(無障無礙)한 법계의 법문을 확인해보니,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 없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 (原夫無障無礙法界門者, 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也. 爾乃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 不一不多, 由非大故, 作極微而無遺; 以非小故, 為大虛而有餘. 非促之故, 能舍三世劫波; 非奢之故, 舉體入一刹. 不動不靜故, 生死為涅槃. 涅槃為生死, 不一不多故, 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불교의 유토피아

대저 법계(法界)는 어디 있나. 그곳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것일텐데,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애타계 갈망하지만, 도달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그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그곳이 어디인지도 어떤 곳인

지도 모르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법계, 그곳은 무장무애(無障無礙)하답니다. 절집의 용어로는 '결림이 없다'고들 하지요. 결림이 없다? 그럼, 그곳에 든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물고, 그런 자유와 행복이 충만한 곳인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계는 동양적 이상향인 무토도원이나 유학자들의 오랜 꿈인 신선계, 기독교 문명의 행복관 정원 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유토피아는 동서고금 모든 선재자들의 오랜 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교의 법계의 유토피아는 다른 구원의 전통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팔자를 말하자면, 법계는 어디까지나 '지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가 꿈꾸는 별 세계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밖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열 두번씩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꿈은 더욱 크고 강렬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지금도 평창동 산 속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빛을 위해 밤새

도록 울부짖고 있는 통성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늘에서 무슨 줄이 내려올 것이며, 거기 잡고 올라갈 무토도원이나 신선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상의 서방정토

불교는 그 하이레벨에서, 이 낡고 후진한 지상을 떠나 상상의 유토피아나, 죽어 경협하게 될 천국이나, 뭐,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은 꿈도 꾸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얹는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노인처럼 이 말에 깨달음을 얻고, 여우의 몸을 벗어났습니까. 대체 '떨어진다(墮)'와 '혹한다(蝕)' 사이는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지상에서 어떻게 무장무애, 결림없는 삶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 우호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가 채워졌다 싶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쳐들어오며, 그것들을 처리하기에 내 지혜와 지식은 왜 또 이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답되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누스의 두 얼굴

원효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는 지금 법(法), 그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도달해야 할 그 지복의 나라에 대해서...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 없다." 이게

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진정 법이 숨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적 어느 선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풍류가 아닌 곳에 진정 풍류가 있다.(不風流處也風流)"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후진하고 비틀거리려는 이 세상 속에 진정 법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세이면서 곧 법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두 공간이 겹쳐 있습니다. 한 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계가 한쪽 얼굴은 속세이고, 한쪽 얼굴은 법계입니다. 이 뜻을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 법계의 그림자를 엿보고 싶으십니까. 원효는 그 세계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파합니다.

반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를 설명은 매우 단순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고구정법이나, 언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현란한 수사는, '법계란 곧 삶의 과정 자체'라는 것, 그것은 회고나 기대로 추상화되거나 단편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역설과 모순은, 이 세계가 우리가 부여하는 모든 상대적 규정이나 제한, 의도나 목적 등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하게도 모순과 갈등 또한 이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지, 우리네 삶의 과정은 갈등과 분열로 빠져버리는데, 물리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이 세계는 무장무애로 결림이 없나, 이 자기당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난관에 제방의 선지식들은 무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그리고 보니,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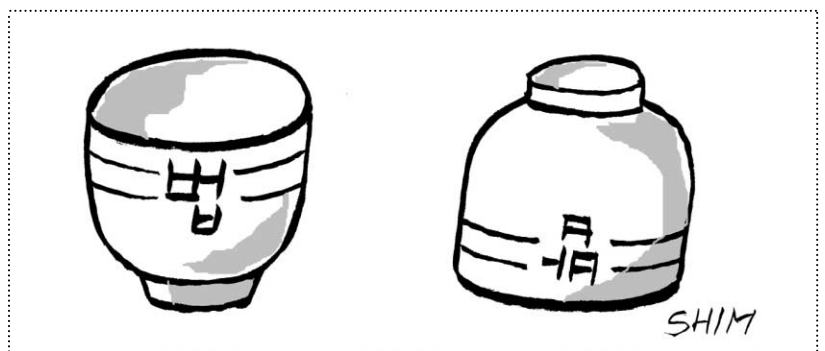
사바에서 어떻게 무장무애를 얻나

박습니다. 이 지상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기 지금 주어진 삶이 전부입니다.

해능이 <육조단경>에서 서방정토가 "지금 여기 있으니 내가 지금 보여주라"고 했듯이,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사북인가요, 원효의 친구였다.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문으려고 땅을 여러 그곳이 바로 서방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이같은 지금 여기(hic et nunc)의 철저한 믿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노리는 자유 또한, 당연한 귀결로, 이 차갑고 냉혹한 연기법(緣起法)의 세계, 그 지상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다면 <무문관>에 적힌 백장(百丈懷海 749-814) 회상(會上)의 그 노인처럼, 500세, 1500년을 여우 거죽을 덮어쓰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 노인은 "깨달은 사람은 인과(因果)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그리 되었고 합니다.

백장의 훈수(轉語)는 "인과에 혹하지



렇게 모자라는 것입니까. 세상은 온통 결리고 비틀거리는데 장어물들뿐인 것인데, 대체 이 속에서 어떻게 절대적 자유를 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나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화두 가운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음을 안고 각자 정진할 일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물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봉과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부닥치는 문제인 것을...

무슨 말일까요. '법이 아니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곳에 법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착각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은 신성한 곳, 위대한 곳, 초월적인 것, 그리고 이른바 불교적인 것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 지상의 삶 바깥에 무슨 멋진 라스베가스도 달려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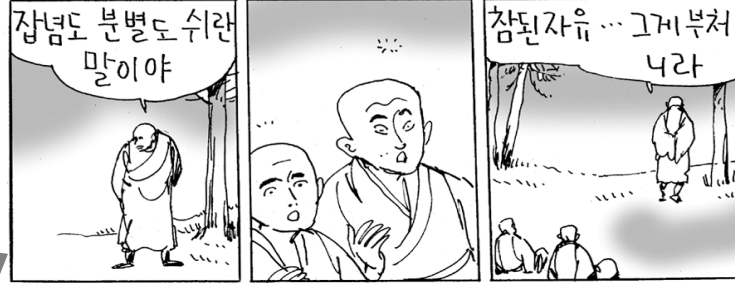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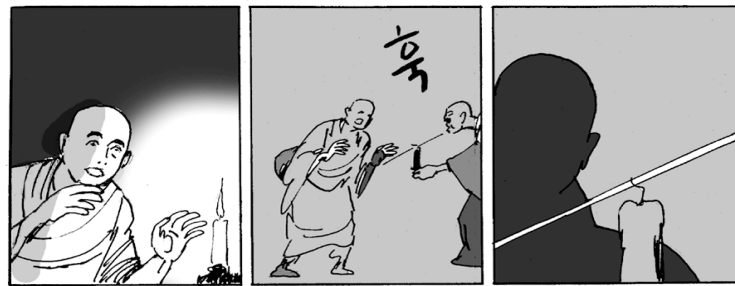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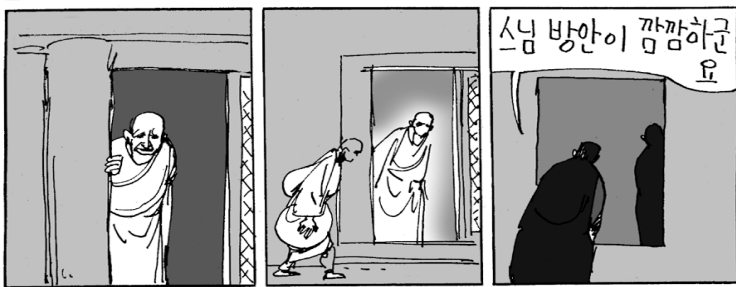
다시 '법 아님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전

주장사파라...

66 덕산선감의 '괘이질'



조태호



덕산선감(德山宣鑿 782-865) : 당대(唐代)스님. 청원 문하로<금강경>에 정통해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림. '덕산방 입제할'의 방(法)으로 유명.

네티즌 교리문답

무념행(無念行)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무념을 강조합니다. 언뜻 보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무념(無念)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무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강소석)

답1: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써 관조하여 인편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입니다. 이미 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般若三昧)며,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無念)이라 합니다. (불학자)

답2: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곳에 두루 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치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六賊)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 나가게 하나 육진(六塵) 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 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재해탈(自在解脫)인 무념행(無念行)이라고 이름 합니다.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곧 법에 묶임이니 곧 번견(邊見)이라고 합니다. (무상)

답3: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쇠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주다 하더라도 스스로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반야의 관조(觀照)를 일으켜야 합니다.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의 참선지식이다. 한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되기)

답4: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에서는 무념을 무상(無相), 무주(無住)와 함께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념을 "사물을 생각하는 가운데 망념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념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상(無相)을 본체로 삼고,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무념은 일체의 바깥 경계에 집착해 번뇌 망념으로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차별의 경계를 여의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도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능)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9 2 12
3 10 4 6
13 7 15
8
정답은 19면에

상식퍼즐

- 1. 부처님 10대 자 중 한 사람으로 대음광이라고도 불림
2. 군대의 사기
3. 상대편을 높여 그의 남편을 일컫는 말
4. 어린 스님을 이르는 말
5. 어떤 사안을 법적으로 인정해 그 시행을 허락하는 것
6. 중국 북부나 몽골 지방의 황토가 바람에 날려 온 하늘에 누렇게 끼는 현상
7.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꽃
8.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한 곳.

- 1. 부처님의 생모
9. 승가람의 준말로 절의 건물들 통틀어 일컫는 말
10. 군대의 사기를 위해 지어 부르는 노래
11. 통상 소승불교의 반대말은 ○불교
12. 수장탑자가 기타태자의 정원에 부처님을 위해 세운 절
13. 밤에도 낮처럼 밝음이 지속되는 현상
14. 강원도 인제군 북면(北面) 용대(龍臺)에 소재하고 전두환 前 대통령이 주석했던 절
15. 기름에 튀겨서 말린 국수에 양념 스프를 따로 넣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즉석식품.